

## 일본에서의 교환유학

경북대학교

홍수민

경북대학교에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으로 교환유학을 오게 된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의 일본에서 교환유학 생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2022년 4월부터 교환유학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 학기 미뤄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일본 입국 허가가 불분명했고 대면 유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학기 미뤘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에는 일본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일본어 전공이 아니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일본어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어로 말을 잘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JLPT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읽기는 되었지만 말하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면서 수업도 듣고 일본어로 말할 기회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일본어 말하기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식품공학으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있어 이곳으로 교환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학기는 저의 일본어 실력 부족과 식품영양학과 전공 수업이 실습 위주 수업이라 참여 제한이 있어 유학생 수업과 교양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업이 좋았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사정연습2B입니다. 일본사정연습2B에서는 일본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 배우며,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설 초등학교 5학년들과 교류회를 합니다. 이 교류회가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교환유학을 가서 나의 또래들과 만날 기회는 많지만, 그 나라의 초등학생들과 만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회에서는 초등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교환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고, 교환학생들도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국지폐를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가지고 신기해하던 초등학생들의 얼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에서 교환유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디즈니씨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첫 도쿄돔 콘서트에 갔습니다. 도쿄 근교인 가마쿠라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축제, 휘음제를 즐겼습니다. 휘음제에서 서예부 부스를 보고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서예부에 들어가 서예도 배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도쿄 곳곳에서 하는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LED 빛이 모여 빛나는 풍경이 매우 예뻐했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이는 조조지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꽃꽂이와 기모노 입기 체험을 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인학생과 페어로 한 학기 동안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상대방부터 일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모든 순간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환유학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지도교관이 되어 주신 모리야마 선생님, 교환학생을 담당하여 여러 도움을 주신 하기와라 선생님, 좋은 수업을 해주신 니시자카 선생님, 니시카와 선생님, 카토 선생님, 코바야시 선생님, 모리미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속을 해주신 국제과 선생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기숙사 관리인분들도 감사합니다.

